

## ‘현대불교’ 폐간 위기... “적자 감당 못해”

### 12월 3일 이사회 결의, 연말까지 제작 일방적 통보... ‘교계 충격’ 직원들 ‘비대위’ 구성 “가용자산 70억... 납득 못해” 철회 요구

현대불교신문이 폐간될 위기에 놓였다. ‘현대불교’ 운영주체인 한 마음선원은 전격적으로 신문사 폐간 결정을 내리고, 이 사실을 12월 7일 직원들에게 통고했다.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헤럴 스님은 “누적된 재정적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폐간기로 12월 3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헤럴 스님은 또 “회계법인을 통해 신문사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며 “12월 27일자 신문을 끝으로 신문발행을 중지하니 3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폐간 통고를 받은 직후 신문사 직원들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회를 열고 “폐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결의하는 한편, 이 같은 입장을 헤럴 스님과 한 마음선원 측에 전달했다.

이어 현대불교 노동조합도 양보하는 자세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11일 임시총회를 열어 노조를 해산했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위는 대립보다는 이해와 대화로 폐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통해 신문사를 정상화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14일 발표한 ‘현대불교 폐간 결정의 배경과 직원들의 입장’에서 △현대불교의 창간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제호를 유지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경비감감을 통해 독자적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조처해 줄 것과 △신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현재의 사무실과 집기, 각종 자료, 온라인 시스템 등 유·무형 자산을 직원들에게 양도해 줄 것을 한 마음선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현대불교’ 폐간 결정은 단순히 일개 신문사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불교계 내부는 물론이고 불교의 대외적 위상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대불교’는 1994년 창간후 12년 동안 불교언론 발전과 포교, 그리고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현대불교’ 폐간은 신문사가 축적해 놓은 지적 자산과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적 자산과 인프라는 12년이라는 시간과,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막대한 결과물이자 불교계 공공 자산이다. 폐간을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로 바로 불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회의 공적인 언론사가 운영주체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현 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폐간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은 납득



폐간 결정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 현대불교신문사 직원 40명이 12월 14일 한 마음선원을 방문해 폐간을 철회해 달라는 ‘철회의 탑’을 놓고 있다.

하기 어렵다.

현재 ‘현대불교’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 자산은 약 70억원 가량이다. 한

마음선원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대불교의 자산과 지난 12년간의 경영수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자산 현황이 총자산 대비 -5.4억원으로 드러났지만, 현재의 보유자산을 감안하면 폐간을 단행해야 할 만큼의 위기상황은 아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회사내 구조조정이 시작돼 고객부, 출판부, 부대피아 등의 부서가 정리되면서 4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고 이에 따라 적자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경영자의 부실경영과 이사회회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일방적 폐간 결정으로 직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가족이나 열악한 불교계 언론 환경을 더욱 훼손하고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대불교’는 적자를 극복하지도 못했지만 불교언론의 질을 높이고 불교문화 발전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불교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마음선원과 직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수치상의 손실만을 내세워 신문을 폐간한다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불교 포교 사업은 모두 접어야 한다는 논리이며, 이런 논리라면 어느 누가 주인의식을 갖고 불교계에서 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해결적 폐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불교’ 폐간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다.

경영적자를 해결하겠다는 한 마음

선원의 입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 인자체를 해산해 폐간하겠다는 것은 다른 운영주체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이라는 것이 불자들의 시각이다.

관련기사 4·5·24면

5면에 계속

## “폐간결정 비불교적 처사 지혜모아 대안 찾아야”

긴급좌담 ‘폐간은 막아야...’서 참석자들 지적

“12년 동안 사찰을 짓고 불교회관을 건립하는 불사 이상의 효과를 거둔 <현대불교>는 불교계의 공공자산이므로 폐간은 안 된다.”

한 마음선원의 현대불교신문 폐간 결의가 있는 후 ‘폐간은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한 긴급좌담이 12월 15일 서울 사간동 태고종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좌담에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과 성태용(사우리)는 선우 이사장(건국대 교수), 최정희(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불교> 폐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비불교적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를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고, 직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더라도 속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간 결정 재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종교인으로서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리지 않길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정희 前 편집국장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서로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폐간을 막기 위해 한 마음선원이 아니라라도 <현대불교>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별취재팀

긴급좌담 4면에

금주 24면 발행

**보이차 紅茶園**  
친년보이차 · 친동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 “경악... 안될말... 큰 손실”

종단협·재가연대 등 전국서 반대성명 잇따라

‘현대불교신문 폐간을 철회하라’는 함성이 물결 듯 밀려들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의 전격적인 폐간 결정에 대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불자모임 이타회, 광주불교사모연합회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광주전남포교사단 등 광주전남 13개 단체, 한국불교기자협회, 불교출판

협회가 12월 13~15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제가 연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등도 ‘현대불교’ 폐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

하며, 곧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열린우리당 불자국회의원 모임인 이타회(회장 윤원호 의원은 12월 13일 ‘현대불교신문 폐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면에 계속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12~13편 단양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시방세계 제1회 정담문화공연 현장	9면
연말연시를 산사에서 템플스테이 · 기도처안내	7면
군포교 활성화 좌담	8면
‘승업주’ 영승수행	11면
‘꽃비’ 들고 온 원성 스님	16면

전선(케이ابل)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동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בל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속 시공합니다.

중등

팔각불촉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불촉등)

참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LED인등

경기도 하남시 교신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